

부흥과 선교

성 경 본 문	사도행전 1:8, 8:1
요 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찬 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과의 목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부흥과 선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우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한다.



I. 생각하기

1.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2. ‘부흥’은 언제 혹은 어떻게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II. 생각 넓히기

부흥은 성도의 영적인 생명력을 새롭게 일깨우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부흥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개인과 공동체는 그 부흥을 전달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지역들과 나라들로 향했고, 그 결과 그러한 지역들과 나라들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부흥은 자유로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지난 역사에서 일어난 부흥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유사한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고, 부흥의 결과는 예외 없이 선교적 열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흥과 선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며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무리들로서 그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 대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5)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오순절의 성령충만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마치 불의 혀 모양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신기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함께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진정한 삶의 변화,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남녀의 큰 무리” (행 5:14)가 예루살렘 교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잡히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들의 열정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선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로 인해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으며, 어떤 이들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박해가 왔을 때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또 선교하는 다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2. 현대사에서 경험된 부흥과 선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도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부흥의 불씨를 안고 신대륙을 찾아온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18세기 식민지 미국에서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윌리엄 테넌트 (William Tennent)가 ‘통나무 학교’를 통해 배출한 목회자들과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의 역할을 중심으로 미국내 여러 지역과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예: 미국 해외선교위원회[1810], 미국성서공회[1816], 영국 구세군[1865]). 지역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순회 전도자 등이 주도한 대각성 운동은 한 도시에 자리를 잡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주 동안 이어지는 야외 집회를 통해 도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당시 설립된 단체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입니다. 1886년 매사추세츠



대학생 모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해외선교를 위한 헌신의 모체가 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영국으로 퍼져 나가 수 천명의 대학생 출신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부흥으로 촉발된 이러한 선교운동은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주었고, 오래지 않아 한국교회도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선교사들의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인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공개적인 회개가 이어지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1월 2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던 사경회를 위해 길선주 장로와 선교사들은 따로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고, 그날 밤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는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서 회개하며 자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공개적인 회개에 동참을 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계속해서 회개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후에 한국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최관흠을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 만주, 중국 등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3. 21세기의 부흥과 선교

이러한 부흥은 오래 전의 일만은 아닙니다. 2023년 2월에 켄터키주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2주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 (Outpouring)이라 불려진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평소와 같이 채플 시간이 끝났는데, 19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들 안에 남아 있는 영적인 갈망을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학생들이 하나 둘씩 다시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고, 특별한 찬양 인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강사도 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혹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간증을 나누었으며, 온 몸으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에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근처 도시에서,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는 타주와 미국 전역에서 이 부흥의 현장을 직접 보고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어 전파했고, 개인들도 SNS를 통해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21세기 부흥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애즈베리 부흥의 감동과 흥분이 여전히 남아 있던 시기에 알려진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개인과 그룹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맨 (Sandwich Man)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홍 투 리오 (Hong Too Leow) 교수는 애즈베리에 방문 교수로 왔다가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자신에게 보장된 모든 것을 버리고 애즈베리 근처에서 자신의 몸 앞뒤로 사인판을 걸치고 수년 간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분입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요청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왔던 분이 있었고, 애즈베리를 졸업한 동문들은 모교의 후배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바로 전날 저녁에 있었던 현직 교수들의 기도 모임인 증인들의 모임 (Witnessing Circle)에서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오랜 기도가 있었기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열매와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열매로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학교들에서도 유사한 모임이 시작되었고, 애즈베리 학생들은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기 위해 초대 받거나 자원해서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타문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삼 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부흥 운동이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한 것입니다.





III. 생각살기

1. 당신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내가 속한 소그룹 (구역이나 셀)이나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